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1호 [주체 제23303호] 주체99 (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67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심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7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심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나붙어있는 군부대에는 수령결사옹위의 열풍이 뜨겁게 끓어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부대에 모시는 크나큰 경사에 접한 군인들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

를 진감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총폭탄!》,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산발들을 뒤덮으며 창공높이 메아리쳐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가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작전지휘실에 들리시어 부대

의 임무수행정형과 지휘관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장병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맡겨진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으며 부대에서 작전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지휘관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지휘할수 있는 높은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갖춘 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전투기술기재관리정형을 알아보신 후 공원을 방불케 하는 병영구내를 거니시며 부대관리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들속에서 무

기애호정신이 높히 발휘되고있으며 병영과 구내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린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부대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비약과 혁신의 한길로만 줄달음치고있는 인민군인들은 조국의 통일전쟁에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문화 및 물질적제부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위대한 선군시대를 찬란히 빛내여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스런 성과는 애국에 불타는 우리 군대의 정신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군인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각종 후방시설

들을 훌륭히 갖추어놓았으며 지휘관들이 친혈육의 정으로 병사들을 극진히 돌봐주고있는데 대해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데서 기수, 열거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군부대 전체 장병들은 인민군군인들을 사랑의 환포에 안으시어 위훈의 창조자로,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시대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주의조국방선을 목숨바쳐 사수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로씨야, 중국, 방글라데시의 통신, 신문이 3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회령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일동지께서는 훌륭한 담배를 생산하고있는 회령대성담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공정의 기술개진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 이 공장 로동계급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최신식

설비들로 장비된 회령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맞춤형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비롯한 식료가공식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회령교역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난해 우리 조상들은 수천년동안 고려약만 가지고 병을 고쳤으며 건강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회령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리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다양한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으시어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머니께서는 조국의 광복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른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나라의 람브메-노보스체통신도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신문 《참고소식》, 방글라데시신문 《블리프》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흥시의 경공업공장을, 함흥수리동력대학,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 선군의 기치높이 승리만을 떨치는 조선

### 여러 나라 신분이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일에 즈음하여 기네, 파키스탄신문이 특집하였다. 기네신문 《호로야》 11월 25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인들의 훈련을 보여주신 사진을 모시고 《김정일최고사령관과 불패의 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일동지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면서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말 맹정의 종식과 함께 《유일초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국제

무대에서 강권과 전쟁을 일삼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침략과 전쟁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이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보위하며 전반적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정치방식으로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선군정치의 의하여 조선의 군사적전지가 절충성장이 다져지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에 대

한 미국의 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조건에서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이시였으며 끊임없는 군부대시찰로 인민군대를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선군정치의 의하여 조선의 정치사상전지가 백방으로 강화되었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똘똘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은 선군정치의 의해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선군정치의 의하여 조선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이 펼쳐졌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조선의 장엄한 현실은 선군정치가 안아온 역사의 기적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령도

에 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 길이 위용떨칠것이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 11월 28일부는 《선군,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선군은 사회주의 조선의 상정으로 되고있다. 선군을 떠나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사를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여온 우리 공화국의 로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김정일동지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선군혁명위업완성의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역사적사변이다.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의 미래는 밝고 양양하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수령결사옹위대오에 빛나는 불멸의 모습

12월 24일, 뜻깊은 이날이 하루 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 불타고있다.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강그리

바치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 우리를 수령결사옹위대의 신념으로

만장약된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사에 아로새겨진 그녀의 크나큰 업적

이제와 남조국피폐당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미쳐달뛰고있는

이 시각 수령결사옹위대의 총대를 더욱

스르려기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선 우리의 혁명적무장

은 세상에 자랑스럽게 떨쳐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에 대하여 생각

할 때면 해방후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대의 혁명강군으로 키우

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녀장군의 모습이 송연히 나타

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참으로 우리 어머니의 한생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어머니의 한생이었으며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의 빛나는 한생이었습다.》

우리 혁명무력을 백두의 혈통을 이은 수령결사옹위대의 혁명강군으로 키

우는 것이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도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신념으로

판심하시던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총대사이다.

주제 35 (1946)년 2월 어느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학원(당시) 개원식에 참석하시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신 개인식당은 환희와 격정으로 설메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원일군들에게

평양학원은 명실공히 새 조선의 민족간부를 키우는 김일성장군의 학

교이라고 하시면서 학원에서는 모든

교육과 교양을 철두철미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평양학원의

성격과 사명을 뚜렷이 밝혀준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백두산녀장군께서는 이날 학원의 곳곳에

자욱을 찍으시며 평양학원이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학교로서의 자기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모든 교육내용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의

것을 더 잘 가르치는데로 지향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영생불멸의 혁명총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창작되었을 때에도 김정숙동지

께서는 이 노래를 평양학원 학생들이

대합창으로 노래 부르게 하시었다. 이

계기를 통하여 학원의 일군들과 학생들의

가슴가슴은 어머니수령님을 일평단심

받들어모시고 새 조국을 일떠세울

때를 더욱 힘써 준비하시었다. 혁명무력건설의

초사로 떠나가게 되는 평양학원 졸업생들에게

우리 당의 핵심이며 인민군대의 정치간부들이

동무들에 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기대는 크

다하고, 부대에 나가면 무엇보다도 모든

군인들을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우리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백두산녀장

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학원

(당시) 개원식에 참석하시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신 개인식당

은 환희와 격정으로 설메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원일군들에게

평양학원은 명실공히 새 조선의 민족간

부를 키우는 김일성장군의 학교라고 하시

면서 학원에서는 모든 교육과 교양을

철두철미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평양학원의 성격과

사명을 뚜렷이 밝혀준 귀중한 가르치

심이었다. 백두산녀장군께서는 이날 학

원의 곳곳에 자욱을 찍으시며 평양학

원이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학교

로서의 자기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모든 교육내용이 수령님의 혁명사

상에 기초하여 우리의 것을 더 잘

가르치는데로 지향되도록 이끌어주시

었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영생불

멸의 혁명총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 창작되었을 때에도 김정숙동지

께서는 이 노래를 평양학원 학생들이

대합창으로 노래 부르게 하시었다. 이

계기를 통하여 학원의 일군들과 학생

들의 가슴가슴은 어머니수령님을

일평단심 받들어모시고 새 조국을

일떠세울 때를 더욱 힘써 준비하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

학원(당시) 개원식에 참석하시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

군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

지를 모신 개인식당은 환희와 격정

으로 설메였다. 그날 김정숙동지

께서는 학원일군들에게 평양학원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학교

로서의 자기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모든 교육내용이 수령님의 혁명

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의 것을 더

잘 가르치는데로 지향되도록 이

끌어주시었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영생불멸의 혁명총가 《김일성장

군의 노래》가 창작되었을 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노래를 평양

학원 학생들이 대합창으로 노래

부르게 하시었다. 이 계기를 통

하여 학원의 일군들과 학생들의

가슴가슴은 어머니수령님을 일

평단심 받들어모시고 새 조국을

일떠세울 때를 더욱 힘써 준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

시고 평양학원(당시) 개원식에

참석하시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신

개인식당은 환희와 격정으로

설메였다. 그날 김정숙동지

께서는 학원일군들에게 평양

학원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님의 학교로서의 자기의 성격

과 사명에 맞게 모든 교육내용

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

하여 우리의 것을 더 잘 가르

치는데로 지향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영생불멸의 혁명총가 《김일

성장군의 노래》가 창작되었

을 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노래를 평양학원 학생들이

대합창으로 노래 부르게 하시

었다. 이 계기를 통하여 학원의

일군들과 학생들의 가슴가슴

은 어머니수령님을 일평단심

받들어모시고 새 조국을 일떠

세울 때를 더욱 힘써 준비하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학원(당시) 개원식에 참

석하시었다. 민족의 위대한 태

양이신 김일성장군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신

개인식당은 환희와 격정으로

설메였다. 그날 김정숙동지

께서는 학원일군들에게 평양

학원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님의 학교로서의 자기의 성격

과 사명에 맞게 모든 교육내용

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

하여 우리의 것을 더 잘 가르

치는데로 지향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영생불멸의 혁명총가 《김일

성장군의 노래》가 창작되었

을 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

이 노래를 평양학원 학생들이

대합창으로 노래 부르게 하시

었다. 이 계기를 통하여 학원의

일군들과 학생들의 가슴가슴

은 어머니수령님을 일평단심

받들어모시고 새 조국을 일떠

세울 때를 더욱 힘써 준비하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학원(당시) 개원식에 참

석하시었다. 민족의 위대한 태

양이신 김일성장군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신

개인식당은 환희와 격정으로

설메였다. 그날 김정숙동지

께서는 학원일군들에게 평양

학원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님의 학교로서의 자기의 성격

과 사명에 맞게 모든 교육내용

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

하여 우리의 것을 더 잘 가르

치는데로 지향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영생불멸의 혁명총가 《김일

성장군의 노래》가 창작되었

을 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

이 노래를 평양학원 학생들이

대합창으로 노래 부르게 하시

었다. 이 계기를 통하여 학원의

일군들과 학생들의 가슴가슴

# 혁명일화

## 따뜻한 《설경》

지난해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 산하장소의 목회시합포전을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아득히 넓은 들

에는 맑은 목회송이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보기를 하여도 절로 마음이 흐르는데는

평경이었다. 풍작이룬 포전을 돌아

다니며 우리 장군님께서 강행군에

쌓인 피로가 다 풀리시듯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일군들도 열반 감탄을

금지 못하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

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목회송이들이

만발한 목회밭풍경이 희한합니다.

그야말로 숨바다입니다. 대풍작을

이룩한 목회밭풍경을 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인민들에게 온갖 행복을 안겨주

려는 자신의 구상을 제일 앞장서서,

가장 훌륭하게 꽃피워가는

인민군대의 총성이 헤아려져

우리 장군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

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이 고장은

땅이 하도 척박하여 농사가

잘 안되는 곳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던 것이 목회농사를 하면서

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정보당

목회생산량이 다른 작물보다

비할바없이 많았던 것이다.

농장이 몇해사이에 천지개혁

을 하였다고 누구나 경탄하였다.

부대의 한 지휘관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 올리었다. 경애하는 장군

님께서 너무 희한하여 어쩔줄

몰라한다는 데 리해하니, 여기서

옛날부터 하늘의 덕을 보아야

할 수 있는 척박한 고장이라고

하였다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

가고 그의 말을 긍정해주시

었다. 잠시후 포전을 정지도록

여겨보시는 경애하는 장군

님의 우렁우렁한 음성

이 울려왔다. 《선군시대가 또

하나의 희한한 풍경, 목회

밭을 펼쳐놓았습니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목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지세우신

바는 그 얼마나 값진 것인가

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목회송이들이 만발한

목회밭풍경이 희한합니다.

그야말로 숨바다입니다.

대풍작을 이룩한 목회

밭풍경을 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인민들에게 온갖 행복을

안겨주려는 자신의 구

상을 제일 앞장서서, 가장

훌륭하게 꽃피워가는

인민군대의 총성이 헤

아려져 우리 장군님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 올리었다. 경애

하는 장군님께서 너무

희한하여 어쩔줄 몰라

한다는 데 리해하니,

여기서 옛날부터 하늘

의 덕을 보아야 할 수

있는 척박한 고장이

라고 하였다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가고

그의 말을 긍정해

주시었다. 잠시후 포

전을 정지도록 여겨

보시는 경애하는 장

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려왔다.

《선군시대가 또 하

나의 희한한 풍경,

목회밭을 펼쳐놓

았습니다.》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이 자

랑스러운 목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지세우신 바는 그

얼마나 값진 것

인가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러

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 올리었다.

경애하는 장군

님께서 너무

희한하여 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아스파나

까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누르숄탄 나자르바예브** 각하

나는 까자흐스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 따사로운 햇빛 넘치는 주체무용예술교육의 전당

## 평양 무용 대학에 깃든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듬어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 속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장소로 훌륭히 개건된 평양무용대학.

지난 11월 평양무용대학을 몸소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재진행형 연습실들과 뒤편에 위치한 무용극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대학이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되고 모든 교육시설들도 무용예술교육의 전당답게 잘 갖추어졌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혁명파 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예술교육을 나라의 예술발전의 좌우를 나르는 근원적이며 하나로 보고 예술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평양무용대학은 60여년전 어머니수령님의 세심한 관심 속에서 우리 나라의 첫 민족무용인재양성기지로 창립된 무용연구소로부터 자기 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력사의 그 나날 어머니수령님께서선 무용연구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민족무용을 발전시켜 나갈 미래의 주인이며 역군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 모두가 훌륭한 무용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연구소가 나아가길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셨다. 새 조국건설을 위해 헌身的 자금이 귀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연구소의 교육사업과 관리운영에 쓰도록 거액의 자금도 돌려주시고 흰 쌀도 한 가득 보내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을 되새기며, 학생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해방전 일제의 악랄한 민족문화말살책동에 하여 빛을 잃었던 민족무용을 활짝 꽃피우시려는

수령님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개교식준비사업도 보살피시고 학생들이 입을 교복도안도 보아주시며 무용연구소가 어머니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인재육성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우리 인민의 정서와 생활감각에 맞는 무용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떠밀어주신 어머니의 불멸과도 같은 따사로운 사랑은 정령 끝이 없었다.

이렇게 백두산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고고성을 터친 주체무용예술교육의 새 력사였다.

창립후 근 한달만에 무용연구소에서는 백두산3대장군을 모시고 진행된 첫 공연무대에 군무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헌무》를 올려 전체의 애국가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창작한 앞날에 대한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버차게 펼치었다.

이곳 교육자들과 학생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데로 후대교육과 민족무용발달, 무용창작과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려나오며 김정숙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사랑의 뜻을 펼쳐 입고 여러차례의 세계청년학생축전들에 참가하여 새 민주조선의 약동하는 기상과 민족예술의 우수성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태양의 빛발은 더 밝게 비쳐들었다. 불이붙어지는 가뭄엔 전화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무용교육사업과 무용연구를 중단없이 밀고나가기로 강력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전후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정규적인 교육체계를 가지고 재능있는 무용가, 창작가들을 키워내는 무용학교를 내오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또한 주제 51 (1962)년 11월 2일 교린, 학생들이 창작 공연한 무용극 《붉은 기발》

을 몸소 보아주시고 사상에 숭고성이 높은 훌륭한 무용작품을 창작형상한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작품에 인민상을 수여하며 무용학교를 평양예술대학으로 발전시키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부여하시었다. 주체무용발전과 무용인재육성에 쌓으신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눈이 내렸다》, 《조국의 전담대》, 《키춤》, 《사과풍년》과 같은 4대명작무용으로 주체예술의 보물고고를 더욱 풍부히 하시며 20세기 문예부흥기를 펼쳐가시던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우리의 무용예술을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주체적인 무용표기법을 만들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평양무용대학 (당시)의 무용교원들도 연구집단에 망라되어 무용표기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릴 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불후의 고전적작품을 발표하시어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주체적무용표기법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구사업을 지도해주시던 현명한 령도아래 교원들은 무용예술부문 안무가, 배우들과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며 인문분야에 특기할 사변인 우리 식의 무용표기법을 내놓는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고 그 완성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었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무용교육의 과학화수준이 보다 높아지고 무용표기와 관련한 교과서, 참고서들도 많이 나와 무용예술인재육성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렇듯 혁명의 년도와 년대를 이어 무용예술교육의 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온 나

라에 강선의 불화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리신 벅찬 시기에 평양무용대학을 내올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대학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도록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개건공사와 관련한 설계도 판공되고 유능한 설계집단에 맡겨 주시고 선군시대 평양변영역 조성에서 위훈을 세운 수도건설자들도 보내주시며 공예도 생각지 못할 뜨거운 사랑으로 방대한 공사환경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속에 우리의 무용예술이 창창한 미래를 향하여 더 높이 비약할수 있는 기적 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어머니를 돌아보아도 감탄을 금할수 없다.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된 대학에는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된 교사들과 무용극장, 기숙사, 체육실, 문화후

생시설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당의 은정어린 수많은 현대적인 설비들은 또 얼마나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지인가. 대학을 현지지도하시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연철소개설의 어느 한 소개관에 나뉠은 사정없이 한동안 걸음을 멈추시었다.

사건의 주인공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무용대학을 내오도록 하시면서 지난 시기 당의 품속에서 삶을 빛내이며 나라의 무용예술발전과 교육사업에 이바지한 높은 실력과 열정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무용의 특성을 더욱 꽃피우고 미래의 인재육성을 떠밀고나가는 주체적 무용교육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었다. 정태선, 박애라, 김창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그들 가운데서 70대나이의 한 대학교원의 모습도 알아보시며 뜻깊은 회고의 말씀을 하시었다. 아,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

복이 또 어디에 있으랴. 함으로 평양무용대학은 예술의 영재이며 값있는 삶의 은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소리 높여 노래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장소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제 2인자 60여년간 재능있는 무용예술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며 주체예술발전에 이바지한 평양무용대학에 선군태양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 선군태양의 빛은 번영의 앞길에 펼쳐져있다. 세상에 자랑높은 영광의 대학이여,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하라.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사학과 주체적인 문예리론,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실력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육성의 불바람을 세계 일대로 주체무용예술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라.

글 쓴사기자 오철룡 사진 쓴사기자 장철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내세워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김일성총장님께서 평양의학대학 임상제2의 학부 외상정형외과학과와 의료인재들은 만경대구역 철골 1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강근두동무의 집을 찾았다.

당시 그는 척추발장애에 의한 하반신마비로 진통을 겪고있었다.

한창나이인 40대 중반기에 이르러 안해의 부속임속에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근두동무는 번민이 많았다.

환자를 진찰하고난 의료인재들의 열골색도 그리 밝지 못하였다. 환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지난 기간 중환자실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한 강근두의 의료인재들은 불가능한 정성이 부족한데서 오는 신념에서 서로의 지혜를 합쳐며 본격적인 치료에 달라붙었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병원의 의료집단이 강근두동무의 병치료를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그는 병원의료집단의 관심속에 수술을 받았다. 병원의 책임인 군인문상민동무가 직접 집도사로 나섰다.

뜨거운 사랑과 정성으로 이어진 나날속에 드디어 강근두동무가 간헐적 마비로 잠깐 쉬었다. 그처럼 대지를 뚫어준 소원했던 그가 수심일만에 자기 힘으로 일어섰던것이다.

한말자욱도 한말자욱 걸음을 옮겨졌던 그날 강근두동무는 웃었다.

한 영예군인의 일기장을 펼쳐며

한 영예군인을 위하는 병원의료인재들의 정성은 참으로 뜨거웠다.

지난 여름, 부주의로 다리를 상하여 다시금 입원처리를 받고 퇴원하는 강근두동무와 그를 바래워주는 병원의료인재들의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감동적인 화폭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조국을 위해 값있는 위훈을 새긴 한 영예군인을 끊임없이 찾고있으며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의료인재들.

이제는 한집안처럼 여겨져 평등으로 함께 살아가는 파장 박충철, 담당사 김현철, 간호사 배영복, 담담간호원 김수향동무를 비롯한 의료인재들의 이름을 그는 자주 외우곤 한다.

한 영예군인의 건강과 앞날의 행복을 위해 마음가슴을 다하는 그들만이 아니었다.

만경대구역 철골 1동사무소의 일꾼들과 34인민반 반장을 비롯한 인민반원들, 전술집이면 낫따발을 안고 웃으며 별실을 들고 찾아오던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체육학부 학생들... 강근두동무는 고마운 조국의 품속에서 자기가 받아온 은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정성, 보탬의 한결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심장의 맹세를 가슴속에만 조용히 묻어두수가 없어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더불어 받아안은 충동이 더욱 강렬해 매일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하루도 쓰지 않고서는 못 견딜 일기로 되었다.

사랑에 울고 감동에 겨워 그 자 쓰는 일기.

그것은 북방은 시대를 노래하는 한 영예군인의 심장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방경찬

# 위대한 수령 김정숙동지께

금수산기념공원을 찾아 재일조선청년학생 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정숙동지께 금수산기념공원을 찾아 16일 김용수 재일조선청년학생 중앙상임위원회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 환한 진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16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이 화환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수령경사용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숙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백두산대장군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 제8차 전국체육부 과학기술혁신경연

제8차 전국체육부 과학기술혁신경연이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다.

체육부부 과학기술자들이 참가한 경연은 과학연구실 및 혁신경연부, 프로그램

#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참관

【평양 1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이 16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참관하였다.

공정에는 위대한 김정숙동지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사적이 여러었다.

# 로씨야를 방문하였던 외무상일행 귀국

【평양 1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를 방문하였던 외무상일행은 15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로씨야 외무성관제자들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진중하였다.

# 베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 대사 임명

【평양 1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베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베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된 김명수동지가 임명되었다.

# 미국 뉴멕시코주지사 사일행 도착

【평양 1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1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어 버 이 사 랑 은 세 기 를 이 어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약수생산지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나라에는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약수와 온천이 많다. 강서약수도 그중의 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에 강서지방에서 발견된 약수는 만년저산성염,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의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잘 알려져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강서약수공장에서 생산된 약수를 즐기며 기쁨을 꽃피며 때 마다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한것은 이 약수에 오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던 절세의 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이 깃들여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의 유종의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

돌이켜보면 해방직후에 벌세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진 강서약수였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서 몸소 약수맛도 보아주시며 약수터를 잘 꾸려 모든 근로자들이 유쾌한 이 약수를 다 마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하나의 광천을 놓고서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혁명의 년도와 년대를 이어 끊임없는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며 로동당시대에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나라의 제보로 빛을 뿌릴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과 사랑을 부여하신 우리 수령님.

주체 62 (1973)년 3월 나라일에 이처럼 바쁜 속에서라도 친히 강서군 (당시)에 있는 약수터를 찾으신 어머니수령님께서선 팔팔 솟아오르는 약수터 기쁨을 꽃피우며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으는 강서약수공장을 건설하여 건강에 좋은 약수를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약수를 즐기시며 기뻐할 인민을 그려보시며 약수의 원천과 터파, 탄산가스 주입, 상표표기 등이 이르기까지 생산공정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공장을 건설하러 떠나주시며 《강서약수》라는 이름까지 몸소 지어주시고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주체 63 (1974)년 3월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 있던 공장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선 강서약수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비공급, 약수의 생산과 보관문제에 대한 한평생의 애정을 다하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근로인재들과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불꽃같은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약수생산지 공장을 새로 꾸리고 공장건설의 모토를 일신시키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때부터 공장에서는 증산의 동음이 더욱 새지게 울려다녔다.

강서약수터에서 약수를 즐기시며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격정을 터친 각계층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을 세차게 들먹이곤 하였다.

그와 더불어 자기들의 일터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속충동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소원을 다 헤아리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공장을 찾아주실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혁명적인 령도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모든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속에서 지난 11월 강서약수공장을 찾아주시고 CNC화된 흐름식생산공정에서 힘없이 생산되어나오는 약수들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서 공장앞에 나선 파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정녕 강서약수공장은 단순한 약수생산지기가 아니다.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나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아래 어머니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력사가 세기를 이어 더욱 가슴뜨겁게 흐르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세상에 걸이날라는 진리를 다시금 뚜렷이 입증해주는 력사의 증거지이다.

오늘도 이 공장에서 생산된 약수를 가져 들은 차들이 사랑의 《강서약수》를 자랑하며 날마다 인민을 찾아 달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의 찬란한 빛바람에 이 하늘아래, 이 땅에나 나날이 늘어나는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며,

본사기자

현대적인 흐름식생산공정을 갖추고 높은 실적으로 기쁨드리

뜻깊은 그날 공장에서 생산되어나오는 약수를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로 하여 우리는 언제나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선군혁명명령의 열화같은 사랑의 세계를 심장깊이 절감하고 있다.

흐름식생산공정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약수터 담기지 않은 봄이며 약수가 가득 담긴 병도 몸소 들어보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은 어머니수령님의 태양의 모습 그대로였다.

정녕 우리 공장은 말 그대로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은정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해주신 높은 목표가 우리들을 부르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유혼을 높이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

에서 지도해주신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최신설비들로 장비된 현대적인 약수생산지기를 훌륭히 꾸리고 운영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어제는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도록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오늘은 공장에 위대한 헌신의 자취를 남기시면서 약수생산을 높이고 그 질을 높이도록 신심도 안겨주시며 더 좋은 메일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선군혁명명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울리며 약수생산지에서 최고 실적을 내는 자랑도 떨치었다.

그 나날에 공장은 3대혁명명령을기단위의 영예를 지녔고 특히 당창건 65돐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약수생산지에서 최고 실적을 내는 자랑도 떨치었다.

컴퓨터조종에서 약수용출로부터 시작하여 생산공정전반을 지휘하는 팡경도 좋다.

공정에는 실정에 맞게 약수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도 그르히 갖추어져있다.

어기에는 훌륭한 생산성과로 절세의 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더욱 빛내일 줄은 목표를 내세우고 혁신적으로 일관을 벌린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 전력공사업과 평양기계대학 연구사들의 애국적열정이 뜨겁게 솟아나고 있다.

이들은 높은 실력과 지칠 줄 모르는 창조적열정을 발휘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없는 한강한 투쟁을 벌려 당의 은정어린 설비들이 큰 은을 내며 더 많은 병약자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차례차례 하여내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나날에 공장은 3대혁명명령을기단위의 영예를 지녔고 특히 당창건 65돐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약수생산지에서 최고 실적을 내는 자랑도 떨치었다.

강서약수공장을 현지

달아주시는 비약의 나래를 세차게 퍼덕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불길을 더욱 활활이 오려갈 드는 생산력의속이 공장이 날마다 뚫고 있다.

우리들은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받들고 공장의 생산공정을 더욱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약수생산을 높이고 그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와 영예를 안고 공장을 더욱 알뜰히 관리운영하며 위용문화적정신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있다.

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서 우리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오늘날의 대고조전공정에 값 높은 삶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나가고있다.

백성근

지배인 립선화



